

## 시편 151편의 11Q5와 칠십인역 본문 자료에 관한 연구\*

김정훈(부산장신대)

---

###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전해진 히브리어 시편과 그것을 바탕으로 둔 정경의 전통에서는 시편이 150편으로 끝난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그리스어 구약성경 번역본인 칠십인역의 전통에는 일찍부터 150편 뒤에 한 편이 더 있다. 이 시편을 포함해서 시리아어 헥사플라(Syro-Hexapla)에서는 정경에 들지 않은 151-155편을 찾아볼 수 있는데,<sup>1</sup> 일반적으로 칠십인역 시편 151편과 더불어 히브리어 대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 시편(들)의 히브리어 대본은 결

---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2868).

1 시리아어 헥사플라 본문에 대한 연구로는, H. H. Spoer, "Psalm 151", *ZAW* 28 (1908), 65-67; H. Schneider, "Biblische Oden in syrohexaplarischen Psalter", *Biblica* 40 (1959), 202-205; H. F. van Rooy, "Psalm 151 in three Syriac Psalm Commentaries", *ZAW* 112 (2000), 612-623 등을 들 수 있다.

국 쿵란 제11 동굴에서 시편 151, 154, 155편을 담고 있는 시편 필사본(11Q5=11QP<sup>s</sup>)이 발견되면서 그 일부의 히브리어 대본이 실재하였음이 밝혀졌다.<sup>2</sup>

쿵란에서 발견된 이 필사본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첫째, 시편 101편부터 그 이후의 시편이 필사된 이 필사본은 히브리어 정경의 시편 배열순서와 다르다.<sup>3</sup> 그래서 그간 이 필사본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 배열의 의미에 집중되었다.<sup>4</sup> 둘째, 이 필사본에는 시편 히브리어 정경에 들지 않은 본문들이 함께 들어있다.<sup>5</sup> 특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룰 시편 151편과 관련하여, 그간 학자들은 칠십인역과

- 
- 2 공식 편집본은 J. A. Sanders (ed.), *The Psalms Scroll of Qumran Cave 11* (DJD IV; Clarendon Press: Oxford, 1965); 본문 비평 각주와 함께 볼 수 있는 편집본으로는 E. Ulrich (ed.), *The Biblical Qumran Scrolls. Volume 3: Psalms-Chronicles* (Leiden: Brill, 2013).
  - 3 정경에 든 시편을 중심으로 11Q5의 시편 배열을 MT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101-103; 109; 118; 104; 147; 105; 146; 148; 121-132; 119; 135; 136; 118; 145; 139; 137; 138; 93; 141; 133; 144; 142; 143; 150; 140; 134.
  - 4 대표적인 견해로는, 당시 유동적인 정경화 과정을 보여준다는 견해(Sanders, *DJD IV*; P. Flint, "The Book of Psalms in the Light of the Dead Sea Scrolls", *VT* 48 [1988], 453-472; P. Flint, *The Dead Sea Psalms Scrolls and the Book of Psalms* [Leiden, et al.: Brill, 1997] 등)와 정경과는 관련 없이 형성된 특이한 경우라는 견해(M. H. Goshen-Gottstein, "The Psalms Scroll (11QP<sup>s</sup>): A Problem of Canon and Text", *Textus* 5 (1966), 22-33; S. Talmon, "Pisqah Be'emsah' Pisuq and 11QP<sup>s</sup>", *Textus* 5 (1966), 11-21; P. W. Skehan, "A Liturgical Complex in 11QP<sup>s</sup>", *CBQ* 35 (1973), 195-205 등)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말로 저술된 연구들로는, 김정우, "시편 본문비평에 있어서 70인역과 쿵란 사본의 위치와 가치", 『성경원문연구』 3 (1998), 291-317; 김정우, "쿵란의 성서 시편들과 11QP<sup>s</sup>의 배열 문제 및 그 정경적 함의", 『Canon & Culture』 2:1 (2008), 89-120; 유윤중, "사해사본 11QP<sup>s</sup>와 시편의 정경화", 『신학논단』 43 (2006), 235-248; 이윤경, "쿵란 시편사본과 페세르 시편을 통해 본 쿵란공동체의 신학", 『Canon & Culture』 10:1 (2016), 147-171 등을 참조하라.
  - 5 이들은 다음과 같다. "시편 154편"(11Q5 xviii 1-16); "구원 탄원"(11Q5 xix 1-18); "집회서 51:13-23, 30"(11Q 5 xxi 11-18 + xxii 1); "시온 시편"(11Q5 1-15); "시편 155편"(11Q5 xxiv 3-17); "창조주 찬양"(11Q5 xxvi 9-15); "다윗의 유언"(11Q5 xxvii 1); "다윗의 저작"(11Q5 xxvii 2-11); "시편 151편"(11Q5 xxviii 3-14). 이 본문들 가운데 "집회서", "다윗의 유언"을 제외한 일곱 편의 본문은 이환진, "쿵란 공동체가 남긴 『시편 두루마리』(11QP<sup>s</sup>) 속의 일곱 시편", 『신학과 세계』 (2005), 7-35에서 우리말로 번역해 놓았다.

이 필사본의 히브리어 본문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두었다. 이 필사본을 처음 편집한 샌더스(J. A. Sanders)가 더 길고 잘 저작된 11Q5의 시편 151편이 더 짧은 칠십인역의 본문의 원-본문(original text)이라고 주장한 이래로<sup>6</sup>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근래에는 그 반대로 11Q5의 시편 151편이 칠십인역의 짧은 본문을 확장한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었다.<sup>7</sup> 이런 관찰과는 별도로, 이런 본문 비평적 관점의 연구 외에도 이 시편이 중간기 유대주의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관찰한 연구들도 더러 있다.<sup>8</sup>

우리는 이 논문에서 11Q5와 칠십인역의 시편 151편 본문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 두 시편 본문의 자료 문제를 다시 살펴보려 한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품고 본문을 분석하려 한다. 첫째, 짧은 다윗이 용사로 무대에 등장하는 이 시편의 내용이 사무엘서 16, 17장의 본문과

6 Sanders, *DJD IV*, 63-64.

7 이런 견해를 주장한 학자들은 M. Haran, "The Two Text Forms of Ps 151", *JJS* 39 (1988), 171-182; N. Fernández-Marcos, "David the Adolescent: On Ps 151", in: R. J. Hiebert (ed.), *The Old Greek Psalter: Studies in Honour of Alber Pietersma* (JSOTSup 33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205-217; M. Segal, "The Literary Development of Psalm 151: A New Look at the Septuagint Version", *Textus* 21 (2002), 139-158; M. S. Smith, "Psalm 151, David, Jesus, and Orpheus", *ZAW* 93 (1981), 247-253 등인데, 이들의 주장에 대한 간략한 해설은 참조. F. L. Hossfeld/E. Zenger, L. M. Maloney(trans.), *Psalms 3. A Commentary on Psalms 101-150*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1), 665-669.

8 가령, U. Dahmen, *Psalmen- und Psalter-Rezeption im Frühjudentum. Rekonstruktion, Textbestand, Struktur und Pragmatik der Psalmenrolle 11QP<sup>s</sup> aus Qumran* (Leiden/Boston: Brill, 2003). 이 책에서 다멘은 이 필사본의 본문을 상세히 주석하면서, 초기 유대주의에서 시편이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해 갔는지를 증명하려 한다. 시편 151편에 대해 우리말로 저작된 논문은 극히 드문데, 이환진, "쿰란 공동체가 남긴 『시편 두루마리』(11QPsa) 속의 일곱 시편", 10-14에서는 시편 151편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았다. 그리고 강수원, "칠십인역 시편 151편에 관한 주석적 연구: 쿰란 시편 본문(11QPsa Col. XXVIII)과의 차이 중심으로", 『가톨릭사상』 57 (2018), 245-283에서는 칠십인역 시편 151편이 헬레니즘 시대 탈 다윗/이스라엘 중심주의적 경향을 내보인다는 점을 증명하려 한다. 참고로, 한국의 배경을 포함하여 시편의 전반적인 연구 경향은 참조. 김태경, "시편연구사.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구약논단』 53 (2014), 325-356.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본문 자료에 관한 질문이다. 둘째, 과연 그간의 논쟁처럼 11Q5나 칠십인역 가운데 어느 한 본문이 원본일지, 아니면 두 시편이 공유하는 또 다른 본문 전통이 있었을지 시편의 기원에 관한 질문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11Q5의 본문을 번역하고 사무엘서의 본문과 비교하면서 본문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그런 뒤에 칠십인역의 본문을 번역하고, 그 히브리어 대본을 추적하면서, 위의 두 자료와 비교하며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두 시편 본문 자료의 상관관계와 출처에 대한 통찰을 끌어낼 것이다.

## 2. 11Q5 시편 151편의 본문 분석

11Q5에서 시편 151편은 두루마리의 맨 마지막 필사면(col. xxxiii 3-14)에 필사되었다.<sup>9</sup> 1-2행은 순례 시편(시 120-134)의 맨 마지막 시편인 134편 1후-3절이 기록되어 있으며, 한 줄을 띄고 새로운 시편으로 151편의 본문이 시작한다. 이 시편은 3행에서 표제가 기록되어 12행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12행에서 한 낱말만 필사하고 남은 행을 비운 채, 새로 시작하는 13행에서 표제로 여겨지는 본문이 다시 등장하여, 두 행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시편은 앞 시편과 분명히 구분된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칠십인역의 151편 6-7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두 시편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앞엿것을 151A, 뒤엿것을 151B로 일컫는 것이 보통이다.<sup>10</sup> 151B이 몇 행을 가지고 있었

9 시편 151편의 필사본 사진본은 참조. Sanders, *DJD IV*, Plate XVII.

10 Sanders, *DJD IV*, 54-64. 이 필사본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는 참조. 김정훈, “쿰란 시편 필사본(11Q5)의 본문 형태 분석”, 『성경원문연구』 48 (2021), 72-74.

을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일지는 필사본의 아랫부분이 훼손되어 알 수 없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필사면마다 15-17.9센티미터 정도 남아 있는 이 필사본의 원래 길이가 25-26센티미터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sup>11</sup> 소실된 본문은 최대한 10행 정도는 더 있었을 것으로 여길 수 있다.<sup>12</sup>

## 1) 우리말로 옮긴 본문

〈151A (11Q5, col. xxviii 3-12)〉

- |                             |    |                              |
|-----------------------------|----|------------------------------|
| וְיִשְׁמְנִי (4) רועה לצונו | 13 | 할렐루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속한.        |
| וְיִשְׁמְנִי (4) רועה לצונו | 14 | 저는 제 형제들보다 더 작았습니다.          |
| וְיִשְׁמְנִי (4) רועה לצונו |    | 그리고 제 아버지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어렸습니다. |
| וְיִשְׁמְנִי (4) רועה לצונו |    | 그런데 그가 저를 그의 양 떼를 치는 목동으로,   |
| וְיִשְׁמְנִי (4) רועה לצונו |    | 그리고 그의 새끼 염소를 모는 자로 삼았습니다.   |
| וְיִשְׁמְנִי (4) רועה לצונו | 2  | 제 손은 피리를, 제 손가락은 수금을 만들었습니다. |
| וְיִשְׁמְנִי (4) רועה לצונו | 15 | 그리하여 저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

11 참조. Sanders, *DJD IV*, 4-5.

12 참조. Ulrich, *The Biblical Qumran Scrolls*, 726.

13 괄호 안의 숫자는 필사본의 행을 가리킨다.

14 필사본의 필사자는 처음에는 “형제들보다”에 해당하는 표현에서 쓰인 전치사 “מִן” (민/~로부터)을 일반적인 서법에 따라 비분리전치사로 필사하였다. 그러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 전치사의 분리 전치사 형태의 “י”을 추가했다.

15 필사본에서 신명사문자(Tetragrammaton)는 정방형 히브리어가 아니라 고대 서체로 구분해서 필사하였다. 여기서는 필사본의 고대 히브리어 신명사문자를 그대로 스캔해서

אמרתִי אני בנפשי	제가 제 영으로 말하였습니다.
לו (6) החרים לוא יעידו לו	3 “산들이 그분께 증언하지 않고,
והגבעות לוא יגידו עלי <sup>16</sup>	언덕들도 저에 대해서 <sup>17</sup> 전하지 않습니다.
העצים את דברי	나무들은 제 말을,
והצואן את מעשי	양 떼는 제 행위를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sup>18</sup>
4 (7) כי מי יגיד ומי ידבר	4 참으로 누가 전하고, 누가 말하며,
ומי יספר את מעשי <sup>19</sup>	누가 일러주겠습니까, 저의 행위를?
אדון הכול ראה	모든 것의 주님이 보셨습니다.
אלוה (8) הכול הוא שמע	모든 것의 하나님, 그분이 들으셨고,
והוא האזין	그분이 귀 기울이셨습니다.

쓴다.

- 16 이 낱말의 이해를 두고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먼저, 이 필사본에서 필사자는 자음 “바브”와 “요드”를 구분하고는 있는 듯하지만, 눈에 드러나게 구분하지 않는다(이에 대해, 참조. Sanders, *DJD IV*, 7; 같은이, “A Multivalent Text: Psalm 151:3-4 Revisited”, *HAR* 8 (1984), 176). 따라서, 본문이 “עלי”인지 “עלו”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후자라면, 이 낱말을 동사로 여겨야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여 샌더스는 본문을 히브리어 동사 “עלה”의 완료 남성 복수형으로 보고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cherish”를 뜻한다고 주장하였다(참조. J. A. Sanders (ed.), *The Dead Sea Psalms Scroll*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 1967), 96, n. 7).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이어지는 구절과 관련해서 이 구절 전체의 의미가 모호해진다. 우리는 이 낱말을 전치사와 1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가 결합한 “עלי”로 읽는다(이런 견해는 참조. F. G. Martinez/E. J. C. Tigheelaar (eds.), *The Dead Sea Scrolls. Study Edition* [Leiden: Brill, 2000], 히브리어 본문은 1178, 번역은 1179[“on my behalf”]). 이렇게 보면, 앞선 문장에서는 “그분께”를, 이 문장에서는 “저에 대하여”를 써서 문장을 입체적으로 완성하게 된다. 이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어는 이어지는 문장에서 “제 말”과 “제 행동”으로 상술된다. 이 낱말에 대한 그 밖의 견해들에 대한 요약은, 강수원, “칠십인역 시편 151편에 관한 주석적 연구”, 251, 각주. 18을 참조하라. 쿤란 히브리어 철자에 대한 일반적인 관찰은 참조. 김동혁, “쿤란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역사에서의 철자 및 음운 유형론”, 『구약논단』 66 (2017), 356-383.
- 17 전치사 “על”(알)의 이런 뜻은 삼상 20:8; 욥 22:2을 비교해 보라.
- 18 괄호 안의 말은 원문에 없으며, 원문의 어순을 살리면서 우리말 어법을 최소한 지키기 위해 집어넣은 말이다.
- 19 이 낱말을 어디에 붙여야 할지는 논란거리다(비교. Sanders, *DJD IV*, 57; Martinez/Tigheelaar, *The Dead Sea Scrolls*, 1179). 앞의 의문문이나 뒤에 이어지는 문장 모두 목적어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문에서 이 낱말은 입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낱말은 먼저 앞에서 진술되는 일련의 의문문들에 목적어 구실을 한다. 더불어 이어지는 문장들의 목적어 구실도 함께 하여서 이 구절의 핵심 낱말이 된다.

- 5 שלח נביאו למושחני 5 그분이 제게 기름 붓도록 자기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 את שמואל (9) לנדלני 사무엘을, 저를 크게 하도록 하시려고,  
יצאו אחי לקראתו 제 형제들이 그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יפי התור<sup>20</sup> ויפי המראה 그들은 모습이 멋지고, 외모가 멋졌습니다.
- 6 הגבהים בקומתם 6 그들은 키가 크고,  
(10) היפים בשערם 그들은 머릿결이 멋졌지만,  
לוא בחר אף אף אלוהים במ 여호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 7 וישלח ויקחני (11) מאחר הצואן 7 그리고 그가 보내서 저를 데려왔습니다,  
וימשחני בשמן הקודש 그리고 제게 거룩한 기름을 붓고,  
וישימני נניד לעמו 저를 그분 백성의 지도자로 삼고,  
בבני<sup>21</sup> (12) בריתו 그분 언약의 자손의 통치자로 그리하였 습니다.”

〈151B (11Q5, col. xxviii 13-14)〉

- (13) תחלת גב[ו]רה ל[דרו]יד [다]윗에게 속한 전[공]<sup>22</sup>의 시작  
משמשחו נביא אלוהים 하나님의 예언자가 그에게 기름 부은 때 부터

20 여기서 쓰인 자음 본문 “תור”는 원래 “תואר”(토아르)였던 것이 무음(quiescent)인 자음 알렘이 탈락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참조. Sanders, DJD IV, 57.

21 이 낱말은 필사본의 첫 필사자는 쓰지 않았으며, 나중에 행간에 추가되었다. 필사본 전체의 필체를 고려할 때, 이 삽입은 원래 필사자가 직접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기는, iii 2; vii 13; viii 6; xii 13; xiii 5, 6; xvi 10(×2), 15; xvii 6(×2); xix 8; xx 9, 17; xxiii 6, 12; xxiv 12, 13; xxv 9, 11, 12; xxvii 2; xxviii 3; Sanders, DJD IV, 13.

22 이 낱말의 기본 뜻은 “힘, 세력”이다(시 90:10; 147:10; 욥 39:19; 41:4; 전 9:16 등). 그런데 전쟁과 관련하여서는 전쟁을 치르면서 세운 업적을 일컫는 데 주로 쓰인다(왕상 16:27; 22:46; 왕하 13:8, 12; 14:15, 28 등). 이에 따라 우리말로 “전공”으로 옮긴다.

אָזי ראי(תי) פלשתי<sup>23</sup> 1 그때 저는 블레셋 사람을 보(았)습니다,  
 [מחרף מומ(ערכות פלשתים) (14) [블레셋 진영]에서부터 모욕하는.  
 [ ] את [ ] אנוכי 저는 [...]을 [...]

## 2) 본문 분석

### (1) 151A 표제

“הללויה”(할렐루야)가 시편의 표제로 쓰인 것은 146-150편이 대표적이다. 11Q5에도 148편을 빼고는 위치는 다르지만, 이 시편들이 있다. 7-9절만 남아 있는 149편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시편들에서 이 표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לדוד”(르다비드/다윗 [에게 속한])이 함께 쓰인 것과, 특히 “בן ישי”(벤 이샤이/이새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시편 표제에서 흔히 등장하지 않으며, 72편 20절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sup>24</sup> 그러므로 표제 전체는 시편에서 익숙한 조합이 아닌 독특한 형태(sui generis)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sup>25</sup> 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볼 칠십인역의 표제에서는 이 본문과 다른 전승을 보여주므로, 이 표제가 원래 시편과 처음부터 저작되었을지, 아니면 11Q5에 와서 비로소 추가되었을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 (2) 151A 1절: 막내 목동 다윗

이 구절은 “קטן הייתי”(카톤 하이티/나는 작았다)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쓰인 형용사는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이라는 뜻으로 쓰였다(삼상 16:11). 그러므로 이 낱말은 원래 다윗의 전통과 연관

23 이 형태는 יאָ의 고어이며, 시 124:3-5에서 찾아볼 수 있다.

24 참조. Sanders, *DJD IV*, 58.

25 참조. Dahmen, *Psalm- und Psalterrezeption im Frühjudentum*, 260.



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낱말과 평행을 이루는 형용사 “צַעִיר” (차이르/어린)은 최연소자를 일컬을 때 쓰이지만, 사무엘서의 다윗 전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낱말이다.<sup>26</sup> 그러므로 이 낱말은 이 시편의 저자가 사무엘서의 다윗 전통을 본문에서 시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것으로 여길 수 있겠다.

이 구절에서 주된 서술은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목동으로 지내던 시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먼저 다윗을 “רועה” (로에/목동)이라고 일컫는 것은 이 이야기의 배경인 16장 11절의 낱말을 그대로 쓴다. 반면에 이와 평행을 이루는 낱말(מושל; 모셀/ 통치자)은 목동과는 사실상 상관이 없으며, 정치 지도자를 뜻한다.<sup>27</sup> 그러니 이 낱말 때문에 앞선 “목동”에서도 문자적인 의미 너머 다윗 전통에서 왕정을 일컫는 용례를 떠올릴 수 있겠다(참조. 삼하 5:2; 7:7).

### (3) 151A 2-4절: 음악가이자 용사인 다윗

이 단락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그린다. 2절의 첫 문장에서는 음악가인 다윗의 모습을 그리는데, 이는 앞선 구절과 달리 사무엘상 16장 11절의 이야기와는 구분되는 전승이다. 물론 사무엘상 16장 17-23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악기 연주자로 부름 받은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본문이 직접 연관되지는 않는다. 첫 문장에서는 두 가지 다윗이 직접 만든 것으로 진술하는 두 가지 악기가 등장한다. 첫째 악기(עוגב; 우가브)는 전통적으로 목관악기로 이해해왔으며, 둘째 악기(כַּנּוֹר / 키노르)는 현악기다. 두 낱말은 창세기 4장 21절과 욥기 30

26 참조. 창 19:31, 34, 38; 25:23; 29:16; 43:33; 48:14; 수 6:26; 왕상 16:34; W. Gesenius (ed.),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Heidelberg et al.: Springer, <sup>18</sup>2013), 1127-1128.

27 참조. 렘 30:21; 51:46; 잠 23:1; 29:12, 26; 전 9:17; 10:4 등.

장 31절에서 함께 평행을 이루며 등장한다. 둘째 문장에서 쓰인 “לִיהוּהַ כְּבוֹד” (심 르야훼 카보드/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다)는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더러 쓰이지만(수 7:19; 사 42:12),<sup>28</sup> 다윗 전통의 고유한 언어는 아니다. 셋째 문장은 속으로 하는 생각을 뜻하며, 샌더스에 따르면, 전도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אֲנִי בְלִבִּי אֲמַרְתִּי” (아마르티 아니 브리비/내가 내 마음에 말하였다; 전 2:1, 15; 3:17, 18)와 같은 뜻을 가진 표현으로 여길 수 있다.<sup>29</sup> 하지만 이 또한 다윗 전통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전반적으로 다윗의 원래 전통과는 독자적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절부터 다윗은 일인칭 화자로 등장한다. 3절에서 화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말과 행동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הַהָרִים” (헤하림/산들)과 “הַגְּבוּעוֹת” (하기보오트/언덕들)의 조합은 구약성경에서 장소의 편재를 뜻하며 매우 익숙하게 대조제유법 (merism)으로 쓰인다.<sup>30</sup> 그러므로 여기서는 어디서도 다윗 자신의 말과 행동이 드러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나무와 양 떼는 흔히 볼 수 있는 조합은 아니지만, 앞선 두 문장을 바탕으로 볼 때, 산과 언덕을 채우는 식물과 동물로 의미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겠다. 다윗의 말과 생각을 아무도 몰라준다는 이 진술이 사울에게 억울하게 추격당한 경험을 전제하는지는 본문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다. 그렇지만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정치인으로서 그의 모습과 신앙인으로서 그의 모습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고뇌를 표현하는 진술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28 비교. Sanders, *DJD IV*, 57; Dahmen, *Psalmen- und Psalterrezeption im Frühjudentum*, 260.

29 Sanders, *DJD IV*, 57.

30 이런 용례는 신 12:2; 33:15; 시 72:3; 114:4, 6; 148:9; 잠 8:25; 아 2:8; 4:6; 사 2:14; 10:32 등; 렘 4:24; 16:16; 겔 6:3; 34:6 등; 호 4:13; 10:8; 율 3:18; 암 9:13; 미 6:1; 느 1:5 등을 보라. Dahmen, *Psalmen- und Psalterrezeption im Frühjudentum*, 261.

4절에서 3절의 문제가 해소된다. 먼저 본문은 세 겹의 수사의문문으로 시작한다. 이는 앞선 구절과 이어지는 대답을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 여기서는 제대로 주목받고 평가받지 못하는 다윗의 “מעשה”(마아세/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앞선 구절의 낱말을 그대로 쓴 것이지만, 다윗 전통에서 이 낱말은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썼던 말을 생각나게 한다(참조. 삼상 19:4). 요나단은 사울에게 “וְכִי מַעֲשֵׂיוֹ טוֹב לְךָ מְאֹד”(브키 마아사브 토브-르카 므오드/참으로 그의 행위는 당신께 매우 선합니다)라고 역설하였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행위”는 그가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이룬 전공을 가리킬 수 있다. 그렇다면 2절에서 보여준 음악가의 모습과 더불어 용사로서의 모습도 이 구절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다윗의 행위를 보고 듣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다. 여기서 ‘듣다’는 뜻으로 쓰인 두 낱말(הַאֲזִין-שמע)은 시편에서 자주 쓰이는 조합이다.<sup>31</sup> 반면에 이 구절에서 2번 쓰이는 “אֲדוֹן הַכּוֹל”(아돈 하콜/모든 것의 주님)과 “אֱלֹהֵי הַכּוֹל”(엘로아흐 하콜/모든 것의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sup>32</sup> 하지만, 11Q5에서 이 시편에 앞서 있는 “דָּוִד הַמִּלִּיטָרִי (David’s Composition)<sup>33</sup>의 11행에서 “מִלְפָנֵי הָעֵלְיוֹן” (콜 엘레 다바르 비느부아 아셰르 나탄 로 밀리프네 하엘리온/이 모든 것을 그는 지존자 앞에서 그에게 주어진 예언을 통해서 말하였다)라는 진술을 염두에 두었을 수 있다.<sup>34</sup> 그렇다면 이 구절

31 참조. 시 39:13; 54:4; 77:2; 80:2; 84:9; 143:1; BDB, 24.

32 이런 읽기는 참조. M. Abegg Jr./P. Flint/E. Ulrich, *The Dead Sea Scrolls Bible* (New York: HarperCollins, 1999), 585; Martinez/Tigshelaar, *The Dead Sea Scrolls*, 1179. 비교. 샌더스(Sanders, *DJD IV*, 57)는 여기서 쓰인 “모든 것”을 문장의 목적어로 여긴다.

33 11Q5의 마지막 편집은 “다윗의 유언”(삼하 23:7; col. xxvii 1) - ‘다윗의 저작’(col. xxvii 2-11) - 시 140(col. xxvii 11-15) - 시 134(col. xxviii 1-2) - 시 151(col. xxviii 3-14) 순서로 되어 있다.

34 이런 견해는 참조. Dahmen, *Psalm- und Psalterrezeption im Frühjudentum*, 261.

은 콤란의 이 시편을 마무리했을 편집자의 저작물로 여길 수 있다.

(4) 151A 5-7절: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

5절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던 사무엘상 16장 1-13절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 이 구절에서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נביא”(나비/예언자)로 일컫는데, 이는 사무엘 이야기의 초기 전승을 바탕으로 한다(참조. 삼상 3:20). 그리고 동사 ‘מָשַׁח’(마샤흐/기름 붓다)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던 때 직접 쓰였던 낱말이다. 반면에 이와 평행을 이루도록 쓰인 동사 ‘גָּדַל’(가달/크게하다)은 다윗 전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 대신 다멘(Dahmen)의 관찰대로,<sup>35</sup> 콤란의 찬양시 전통(Hodayot)<sup>36</sup>이나 이 필사본의 시편 154편 17절(11Q5 xviii, 14)<sup>37</sup>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은 이 낱말의 사용이 성경의 전통이 아니라, 콤란 전통에서 비롯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이어서 5절의 마지막 문장부터는 6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다윗의 형들과 사무엘의 만남을 묘사한다. 사무엘서와 이 본문은 모두 같은 장면을 바탕으로 하지만, 동사(“יָצְאוּ אֶחָיו”)[야츠우 아하이/내 형제들이 나왔다]//“בָּבוֹאֵם”[바여히 브보암/그들이 왔다])와 전치사구(“לְקִרְאתוֹ”)[리크라토/그(사무엘)를 맞으러]//“לְפָנַי שְׂמוּאֵל”[리프네 쉘무엘/사무엘 앞으로, 삼상 16:8])를 달리 써서, 사무엘서에서 사무엘과 이새의 관점에서 진술한다면, 이 본문에서는 다윗의 형들 관점에서 진술한다. 이어서 시편 151

35 Dahmen, *Psalmen- und Psalterrezeption im Frühjudentum*, 262.

36 1QH<sup>a</sup> col. xiv, 18: לְגַדֵּל נֶצֶר לְעוֹפֵי מִטְעַת עוֹלָם (‘to make a shoot grow in branches of the everlasting plantation’); col. xv, 19: לְגַדֵּל נֶצֶר (‘and [to] make a shoot grow’); 히브리어 본문과 번역은 제각각 참조, Martinez/Tigshelaar, *The Dead Sea Scrolls*, 174-175, 178-179 [이 편집본에서는 필사본의 행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멘의 것과 달라서 제각각 col. xiv, 15와 col. xv, 19이다].

37 וְעַל מִפְאָרָיו יִגְדֵּל חֲסָדוֹ (‘and upon those who glorify him he increases his mercy’); 히브리어 본문과 번역은 참조. Sanders, *The Dead Sea Psalms Scroll*, 106-107.

편의 본문에서는 다윗 형들을 “חור” (토아르/모습), “מראה” (마르에/외모), “קומה” (쿠마/키), “שער” (사아르/머릿결)의 네 가지 면에서 묘사한다. 이들 가운데 ‘외모’와 ‘키’는 사무엘서 16장 7절에서 신탁의 형식으로 쓰였던 낱말이다. 하지만 나머지 두 낱말은 외모를 강조하려고 확장된 본문일 것이다. 또한, 여기서 세 번 쓰인 “יפי” (야피/멋지다)는 낱말은 같은 뜻의 “יפה” (야페) 형태로 사무엘서의 본문에서 쓰인다(삼상 16:12).<sup>38</sup> 그리고 6절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형들 가운데서는 “בחר” (바하르/선택하지) 않으셨다고 진술하는데, 이 동사도 사무엘상 16장 8-10절에서 3번이나 쓰였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분명히 사무엘서의 본문 전통을 바탕으로 확장된 시문으로 여길 수 있다.

7절에서는 드디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묘사한다(삼상 16:11-13). 첫째 문장에서 쓰인 두 동사(לָקַח, שָׁלַח)와 “צואן” (츠/양 떼)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데 쓰인 기름을 “שמן הקודש” (쉐멘 하코데쉬/거룩한 기름)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편 89편 21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sup>39</sup> 이어서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를 건너뛰어서 곧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때를 언급한다. 왜냐하면, “נניד” (나기드/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 낱말로 종종 쓰이는데,<sup>40</sup> 다윗 전통에서는 사울을 향한 심판 신탁에서 예언의 형태로 쓰인 뒤에는(삼상 13:14)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던 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다(삼하 5:2; 6:21; 7:8; 대상 11:2; 17:7). 반면

38 참고로 다윗 전통에서 다윗(17:42)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압살롬(삼하 14:25), 그의 아내 아비가일(삼상 25:3)과 압살롬의 누이 다말(삼하 13:1), 그의 딸 다말(삼하 14:27)을 묘사하는 데도 쓰인다.

39 참조. Sanders, *DJD IV*, 58.

40 참조. 삼상 9:16; 10:1; 25:30; 왕상 1:35; 14:7; 16:2; 대하 6:5.

에 이 낱말과 평행을 이루는 “מושל” (모셀/통치자)은 분명히 1절에서 목동 다윗을 묘사할 때 쓰였던 낱말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며, 따라서, 그 구절의 용례가 중의적임을 확인해 준다. 이어지는 “בני בריתו” (브네 브리토/언약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쿰란 문헌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표현으로(1QM 17,8; 4Q284 f4,2; 4Q501 f1,2; 4Q503 f7\_9,3)<sup>41</sup> 이 구절이 쿰란 공동체 저작자의 언어임을 추측하게 해 준다. 따라서 이 구절도 전체적으로 다윗 전통의 구약성경 본문에서 시작해서 쿰란 공동체 저작자의 언어를 가미해서 확장하였다고 여길 수 있다.

(5) 151B: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침

첫 세 낱말은 아마도 새로운 시편, 또는 앞선 시편과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부분의 첫 표제일 것이다. 이것은 “ל(לו)יר” (르(다비)드/(다)윗에게 속한)이라는 전형적인 시편 표제의 관용구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תחלת נבון(ו)רה” (트힐라트 하그(부)라/전(공)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시편의 표제로는 낯설다. 그러므로 쿰란 저작자는 익숙한 시편의 표제와 자기만의 언어를 조합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공”이 이 시편의 주제를 드러내 준다. 곧 용사로서 다윗이 세운 첫 성과, 얼마 남지 않은 본문에서 드러나듯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삼상 17장)이 본격적인 주제다. 사실 표제의 둘째 부분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야기를 전제한다. “기름부다”는 동사와 “예언자”는 이 새로운 시편을 앞선 시편과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151A:5, 7).

이어지는 구절부터는 표제와 구분되어 앞선 151A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일인칭 단수 진술로 이루어진다. 한 구절의 일부밖에 남아 있지

41 참조. Dahmen, *Psalmen- und Psalterrezeption im Frühjudentum*, 262.

않지만, 나머지도 같은 어조로 표현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이 어지는 문장에서 “פִּלְשֵׁתִי” (필리쉬티/블레셋 사람), “מִחֶרֶף” (므하레프/모욕하는), “[מִמְנַעַרְכוֹת פִּלְשֵׁתִים]” (므[아르코트 필리쉬팀]/블레셋 진영) 등의 낱말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쓰인 낱말을 그대로 가져왔다(삼상 17:10, 23, 25). 따라서, 151B의 본문도 기본적으로 사무엘서의 다윗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시편의 나머지 부분은 훼손되어 더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을 시 형태로 고백했으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151A와 마찬가지로 다윗 전통의 본문을 바탕으로 확장된 형태의 시문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11Q5의 시편 151편 본문을 분석한 결과, 151A는 전반적으로 사무엘상 16장 1-13절의 다윗 전통 본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시편과 필사자 당대의 문학적·문헌적 전통을 바탕으로 확장하여 저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51B는 기본적으로 사무엘상 17장의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남지 않은 본문에서도 사무엘상 17장에서 쓰인 주요 낱말을 그대로 썼음을 볼 수 있다. 시문 저작은 151A와 비슷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확장된 본문들이 이 시편의 저작 당시부터 함께 구성되었을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지는 칠십인역의 본문과 대조하여 분석해 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3. 칠십인역 시편 151편 본문 분석

#### 1) 우리말로 옮긴 본문

- 이는 다윗이 직접 쓴 시편이다. 하지만 계수에는 들지 않는다. 그가 골리앗과 혼자서 싸웠을 때.
- 1 저는 제 형제들 가운데 작았고, 제 아버지의 집에서 더 어렸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양 떼를 쳤습니다.
- 2 제 손은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수금을 짜 맞추었습니다.
- 3 그러니 누가 내 주님께 전해드리겠습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귀 기울이십니다.
- 4 그분이 자기 사자를 보내서, 저를 제 아버지의 양 떼에게서부터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분의 관유로 제게 기름 부었습니다.
- 5 제 형제들은 멋지고 크지만,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 6 저는 그 블레셋 사람을 맞서 나갔고, 그는 자기 우상들로 저를 저주했습니다.
- 7 하지만 저는 그에게서 그의 칼을 뽑아서, 그의 머리를 베고,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치욕을 제거하였습니다.
- Οὗτος ὁ ψαλμὸς ἰδιόγραφος εἰς Δαυιδ καὶ ἔξωθεν τοῦ ἀριθμοῦ ὅτε ἐμονομάχησεν τῷ Γολιάδ.*
- Μικρὸς ἦμην ἐν τοῖς ἀδελφοῖς μου καὶ νεώτερος ἐν τῷ οἴκῳ τοῦ πατρός μου. ἐποίμαινον τὰ πρόβατα τοῦ πατρός μου.*
- αἱ χεῖρές μου ἐποίησαν ὄργανον, οἱ δάκτυλοί μου ἤρμοσαν ψαλτήριον.*
- καὶ τίς ἀναγγελεῖ τῷ κυρίῳ μου; αὐτὸς κύριος, αὐτὸς εἰσακούει.*
- αὐτὸς ἐξαπέστειλεν τὸν ἄγγελον αὐτοῦ καὶ ἤρén με ἐκ τῶν προβάτων τοῦ πατρός μου καὶ ἔχρισέν με ἐν τῷ ἐλαίῳ τῆς χρίσεως αὐτοῦ.*
- οἱ ἀδελφοί μου καλοὶ καὶ μεγάλοι, καὶ οἶκ εἰδόκηρεν ἐν αὐτοῖς κύριος.*
- ἐξῆλθον εἰς συνάντησιν τῷ ἀλλοφύλῳ, καὶ ἐπικατηράσατο με ἐν τοῖς εἰδώλοις αὐτοῦ·*
- ἐγὼ δὲ σπασάμενος τὴν παρ' αὐτοῦ μάχαιραν ἀπεκεφάλισα αὐτὸν καὶ ἦρα ὄνειδος ἐξ υἰῶν Ἰσραηλ.*



## 2) 본문 분석

칠십인역 시편 151편은 분명히 11Q5의 것보다 짧다. 그러므로 두 본문이 공통의 전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둘 가운데 한쪽이 확장했거나 요약했을 가능성도 있고, 둘 다 하나의 전승에서 파생했을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칠십인역 본문의 번역 대본을 추정하면서<sup>42</sup>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볼 것이다.

### (1) 표제

칠십인역의 표제는 분명히 11Q5와는 구분되는 오늘날에 전해진 시편의 순서와 범위 확정의 과정이 전제되어 있다. 이 표제는 분명히 위에서 살펴본 쿰란 본문은 물론, 이 시편을 전하는 시리아어 역본과도 분명히 구분된다. 시리아어 역본에서는 이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감사”로 전한다.<sup>43</sup> 그러나 이 표제는 분명히 칠십인역 번역자가 덧붙였을 것이다. 이 표제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한다. 먼저, 다윗이 직접 지었다는 저작권이다. 여기서 쓰인 낱말 “ιδιόγραφος”(이디오그라포스/직접 쓴)은 칠십인역에서 여기서만 쓰인다.<sup>44</sup> 그러므로 이 낱말이 히브리어를 번역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낱말 앞뒤에 있는 낱말은 분명히 시편에서 익숙한 표제를 전제한다. 먼저, “ὁ ψαλμὸς”(호 프살모스/시편)는 “מִזְמוֹר”(미즈모르)의 번역어<sup>45</sup>로 주로 쓰인다. 반면에 “직접 쓴”에 이어

42 칠십인역의 히브리어 대본을 추정한 보기로는 참조. Segal, “The Literary Development of Psalm 151”, 145-154.

43 시편 151편의 시리아어 역본에 관해서는 참조. Spoer, “Psalm 151”, 65-68; Van Rooy, “Psalm 151 in three Syriac Commentaries”, 612-623.

44 참조. E. Hatch/H. A. Redpath,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Greek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Clarendon Press 1897-1906; reprinted Grand Rapids: Baker Books, 1991), 673b(이하 HR).

45 칠십인역에서 이 번역은 히브리어 본문을 전제하는 것으로는 40번,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표제로는 12번 쓰인다. 구체적인 용례는 HR, 1483b-c을 참조하라.

나오는 “εἰς Δαυιδ” (에이스 다위드/다윗의)는 시편 표제에서 주로 쓰이는 히브리어 “דָּוִד” (르다비드)를 직역한 것으로 보이지만,<sup>46</sup> 칠십인역에서 이 경우에는 대부분 “τῷ Δαυιδ” (토 다위드)<sup>47</sup>가 쓰인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시편 모음집의 번역과는 별개의 저작으로 볼 수 있겠다. 둘째, 시편의 계수에 들지 않았다고 전한다. 이 진술이 히브리어를 전제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어지는 시편의 본문과 구분되며 시편의 최종 편집을 전제한다는 점이다.<sup>48</sup> 셋째, 다윗이 골리앗과 혼자서 싸웠다(“ἐμονομάχησεν” [에모노마케센/그가 혼자 싸웠다])는 배경을 전해준다. 여기서 쓰인 동사는 칠십인역에서 니팔형으로 쓰인 “נִלְחַם” (닐르함)을 번역한 사무엘상 17장 10절과 여기서만 쓰인다. 그리고 나서는 요세푸스의 『유다 고대사』(Antiquitatis Iudaecae 6, 177)에서 이 장면을 묘사할 때도 쓰인다.<sup>49</sup> 칠십인역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이 낱말은 그리스어권에서는 일대일 전투와 검투사의 대결을 묘사하는 데 더러 쓰인다.<sup>50</sup> 그러므로 이 낱말은 그리스어 용례에 영향을 받은 칠십인역 사무엘의 번역에서 직접 따온 표현으로 여길 수 있다.

46 비교. לְדָוִד > εἰς Σαλωμων(시 71[72]:1). 어떤 이는 이 전치사구가 다윗에 “관한”을 뜻한다고 보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도 희박하다. 이런 견해는 참조. 강수원, “칠십인역 시편 151편에 관한 주석적 연구”, 256 각주 31).

47 라틴어 역본이나 중세 필사본에서 이렇게 본문을 수정한 흔적이 드러나는 점은 수정자들도 이 표현을 “דָּוִד”의 번역어라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참조. A. Rahlfs (ed.), *Septuaginta Societatis Scientiarum Göttingensis auctoritate. X. Psalmi cum Od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31), 339 해당 본문의 본문 비평 각주.

48 이에 대해 참조. Hossfeld/Zenger, *Psalms* 3, 668.

49 참조. M. Karrer/W. Kraus (eds.), *Septuaginta Deutsch. Erläuterungen und Kommentare zum griechischen Alten Testament. Band II. Psalmen bis Danie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1), 1884(이하 LXX.D).

50 참조. H. G. Liddell/R. Scott/Sir. H. S. Jones, *A Greek-English Lexicon with a revised Supplement* (1843; revised ed. Oxford: Clarendon Press, 1996), 1144(이하, LSJ).

## (2) 1절: 막내 목동 다윗

이 구절에서 평행을 이루는 첫 두 문장은 151A의 해당 부분과 거의 자구가 일치한다. 첫 형용사 “*μικρός*”(미크로스/작은)는 히브리어 “*קטן*”(카톤)의 전형적인 번역어이며, 비교급으로 쓰인 “*νεότερος*”(네오테로스/더 어린) 또한 151A에서 쓰인 히브리어 “*רעך*”(차이르)의 번역어<sup>51</sup>로 칠십인역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칠십인역에서 이어지는 문장은 151A에서 평행을 이루는 두 문장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앞 문장만 반영되어 있다. 사무엘서 16장 전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칠십인역의 더 짧은 본문이 다윗 왕정을 전제하며 중의적으로 쓴 151A의 확장 본문보다 더 오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3) 2-3절: 음악가 다윗

이 단락도 151A에 비해 짧다. 2절에서 본문은 악기를 만든 다윗의 모습을 전하는데, 151A의 본문과 비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진술(151A 2절후)과 피조물들이 자신의 전공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한탄(151A 3절)이 빠져 있다. 하지만, 두 본문이 공유하는 2절에서는 칠십인역의 “*ἄρμός*ω”(하르모조/짜맞추다)는 동사가 더 있는 것 말고는 일치한다. 이 동사는 칠십인역에서 8번밖에 쓰이지 않아서<sup>52</sup> 어떤 히브리어 낱말을 번역했는지 재구성하기 어렵다. 하지만 나훔 3장 8절에서 “*מִן אֲמֹן מִן אֲמֹן*”(미노 아몬/노아몬보다)를 “*מִן אֲמֹן מִן*”(멘 아몬/현악기를 제작하였다)으로 읽어<sup>53</sup> “*ἄρμους χορδῆν*”(하르모사이 코르덴/현악기를 제작함)으로

51 참조. 창 19:31, 34, 35, 39(38); 29:26; 48:14; 왕상 16:34; 욥 32:6; 시 36(37):25; 67(68):27; 118(119):141; 렘 14:3; HR, 942a-b.

52 참조. 삼하 6:5(-), 14(15?); 잠 8:30(1128); 17:7(718); 19:14(132 hi.); 25:11(128); 나 3:8(1128?); 2마카 14:22; 3마카 1:19; HR, 159a.

53 이에 대해서는 참조. Karrer/Kraus, LXX.D, 2410-2411.

번역한 점이나 잠언 8장 30절에서 “제작자”로 여길 수 있는 낱말(יָמַן, 아몬)<sup>54</sup>이 분사 이 동사의 분사 “ἀρμόζουσα”(하르모주사)로 번역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본문의 대본이 “יָמַן”(아몬)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sup>55</sup>

이어 151A에서 다윗 전통과 직접 연관성이 없던 본문이 칠십인역에는 없다. 칠십인역은 3절에서 곧바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하는 본문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곧바로 질문 한 문장 대답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첫 의문문에서 예상되는 목적어가 없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답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이 본문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반면에 151A의 본문은 시편의 시문학적인 평행이나 반복 관점에서나 내용의 관점에서나 명확하다. 그러므로 앞선 구절과 달리 이 구절에서 칠십인역은 분명히 151A 전통의 본문을 요약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sup>56</sup>

#### (4) 4-5절: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

이 단락은 151A의 5-7절과 같은 내용을 전하지만, 더 짧고 몇몇 부분에서 구분되는 본문 전통을 내보인다. 두 본문의 첫 차이점은 사무엘을 일컫는 용어다. 151A가 사무엘을 예언자로 일컬었지만, 칠십인역 4절은 그를 “τὸν ἄγγελον αὐτοῦ”(톤 앙겔론 아우투/그분의 사자)로 옮긴다. 이 낱말은 칠십인역에서 거의 “מַלְאָךְ”(말르아크/사자)의 대응어로 쓰였

54 이 낱말의 뜻에 대한 논의는 참조. M. V. Fox, *Proverbs 1-9* (AYB 18A;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86-287; B. U. Schipper, *Proverbs 1-15*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9), 312-313.

55 세갈은 이 부분에서 동사의 히브리어 대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Segal, “The Literary Development of Psalm 151”, 148).

56 이런 견해로는 참조. J. A. Sanders, “Ps. 151 in 11QPss”, *ZAW* 34 (1963), 78; 같은이, *DJD IV*, 59.

다.<sup>57</sup> 그러나 이 본문에 대본이 있었다면, 이 낱말이 쓰였을 것이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는 한 번도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자”로 일컫지 않았으며, 다윗 왕을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사자” 같다고 일컫는 경우만 몇 차례 있을 뿐이다(삼하 14:17, 20; 19:27). 구약성경에서 예언자를 이렇게 일컫는 보기는 포로기 이후에 가서야 찾아볼 수 있다(학 1:13; 말 3:1). 한편, 성경 외의 쿵란 전통에서 이 낱말은 144번 쓰이는데,<sup>58</sup> 사실상 쿵란 전통에서 이 낱말은 대부분 초월적인 존재의 천사를 가리키는 경향이 짙다.<sup>59</sup> 그러므로 이 표현은 쿵란 문헌 전통의 영향보다는 포로기 이후 전통에 영향을 받은 독자적 표현으로 볼 수 있겠다.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이 양 떼들 가운데 있었다는 표현은 사무엘상 16장 11절을 전제하는데, 151A의 해당 부분에서는 없다. 그 대신 151A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크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칠십인역에서는 곧바로 “ἐν τῷ ἐλαίῳ τῆς χρίσεως αὐτοῦ”(엔 토 엘라이오 테스 크리세오스 아우투/ 그의 ‘관유’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전하고, 형들이 선택되지 않았음을 진술한다. 하지만, 151A는 그 순서가 사무엘서의 내용 전개에 따라 반대다. 칠십인역에서 쓰인 “관유”는 히브리어 “חֵמֶן הַמִּשְׁחָה” (체멘 하미쉬하/관유)를 번역한 말로서 사무엘서 전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제의 전통의 전문용어다.<sup>60</sup> 그러므로 이 용어도 제의 전통 전문 용어를 빌린 칠십인역 시문의 고유한 전통으로 여길 수 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다윗의 형들을 언급한다.

57 참조. HR, 7b-9a.

58 Bible Works ver. 10, Qumran Sectarian MS Module에서 검색함.

59 이에 대해 참조. Michael Mach, “Angels”, in: L. H. Schiffman/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4-27.

60 참조. 출 29:21; 31:11; 35:38; 38:25(37:29); 39:16(28); 40:9; 레 8:2, 10, 12, 29(30); 민 4:16; HR, 1475c.

이 구절은 사무엘상 16장 6-10절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칠십인역의 본문에서 쓰인 낱말들을 살펴보면 사무엘서보다는 151A에서 한 진술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καλοὶ”(칼로이/멋진)는 칠십인역에서 “יָפֶה/יָפֵה”(야피/야페)의 번역어로 더러 쓰여서,<sup>61</sup> 151A 5-6절에서 세 번 반복한 이 낱말의 용례와 연관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이 번역어가 일반적인 대응어인 “טוֹב”(토브/좋은)를 전제할 가능성도 있다. 이어서 쓰인 “μεγάλοι”(메갈로이/큰)는 칠십인역에서 “גָּדוֹל”(가돌)의 번역어로 쓰이며,<sup>62</sup> 151A 6절에서 다윗 형들의 키를 언급한 “גָּבֹהַ”(가바흐/큰)의 번역어로는 에스겔 31장 10절에서 한 번만 쓰인다. 그러므로 칠십인역의 대본이 151A와 같았을 확률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칠십인역은 하나님이 다윗의 형들을 “οὐκ εὐδόκησεν”(우크 에우도케센/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151A가 바탕으로 하는 사무엘서 16장의 전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다. 다만 사무엘하 22장 20절에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맥락에서 시문 형태로 “חֲפֵצִי”(하페츠)의 번역어로 쓰이기는 한다.<sup>63</sup> 그러니 칠십인역의 대본은 “לֹא חֲפֵצִי”(로 하페츠/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셨다)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64</sup>

61 참조. 창 12:14; 29:17; 39:6; 41:2, 4, 18; 신 21:11; 삼상 25:3(cod. A); 삼하 14:25, 27; 왕상 1:3, 4; 예 2:7; 전 3:11; 5:17; 야 1:8; 2:10, 13; 4:1, 7; 5:9, 17(6:1); 6:3(4), 9(10); 암 8:13; 슥 9:17; 말 2:17; 사 3:25(24); 겔 31:3; HR, 715b-716c.

62 용례들은 참조. HR, 902c-907a의 (2a).

63 이 본문의 시편 평행본문(시 18(17):19)에서는 “θέλω”가 번역어로 쓰였다.

64 세겔은 칠십인역에서 이 번역어의 일반적인 대본으로 쓰인 “גָּבֹהַ”로 추정하였다(Segal, “The Literary Development of Psalm 151”, 145). 하지만, 이런 번역어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는 한 번도 쓰이지 않는다. 참조. HR, 569a-b.

(5) 6-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침

11Q5의 151B와 상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6-7절은 이 시편의 표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야기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물리친 사무엘상 17장을 전제한다. 151B가 전체 본문의 일부만 남아 있어서 직접 견주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151B는 151A와 마찬가지로 더 길게 묘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51B는 사무엘상 17장의 전반부에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일대일 전투를 요구하는 장면에서 시작하였다(참조. 삼상 17:1-10). 하지만, 칠십인역의 본문 6절은 곧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일대일 전투에 나서는 장면으로 건너뛰었다. 첫 문장은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배경으로 한다.

시 151:6	삼상 17:40
<i>ἐξῆλθον εἰς συνάντησιν τῷ ἀλλοφύλῳ</i>	<i>καί προσῆλθεν προς τὸν ἄνδρα τὸν ἀλλόφυλον</i>
	וַיִּשָׁאֵל אֶל-פְּלִשְׁתִּי
저는 그 블레셋 사람을 맞서 나갔고	그리고 그가 그 사람, 블레셋 사람을 향해 갔다

두 본문은 일치하지 않지만, 같은 전승에서 비롯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동사와 전치사의 차이이다. 사무엘서가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했다.<sup>65</sup> 그런데 시편 본문의 번역은 칠십인역에서 주로 “אֶל-פְּלִשְׁתִּי … וַיִּשָׁאֵל” (아차 … 리크라트)의 번역어로 쓰인다.<sup>66</sup> 그러므로 번

65 동사 “προσέρχομαι”가 “וַיִּשָׁאֵל”의 번역어로 쓰인 보기는 참조. 창 29:10; 43:19; 출 19:15; 34:32; 레 21:21; 민 32:16; 신 21:5; 25:1, 9; 수 14:6; 21:1; 삼하 1:15; 10:13; 왕상 21(20): 13, 22, 28; 22:24; 렘 49(42):1; HR, 1213c-1213a.

66 참조. 창 14:17; 30:16; 출 4:14; 18:7; 민 20:18, 20; 21:33; 22:36; 31:13; 신 1:44; 2:32; 3:1; 29:7(6); 수 8:5, 14, 22; 삿 4:22; 20:25, 31; 삼상 18:6; 왕상 12:24; 시

역 대분의 차이, 또는 칠십인역에서 익숙한 표현의 영향에서 비롯한 의역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사무엘서 칠십인역 본문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 “그 사람”(τὸν ἄνδρα)을 덧붙였는데, 시편의 칠십인역은 히브리어 본문에 좀 더 가깝다는 점이다.

6절의 둘째 문장은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배경으로 한다. 먼저 동사는 접두어가 더 붙었다는 점 말고는 같다(ἐπικατηράσατο//κατηράσατο 삼상 17:43). 그리고 이어지는 전치사구에서는 블레셋의 신을 가리키는 용어가 시편에서는 “είδῶλοις”(에이돌로이스/우상들)로, 사무엘상에서는 “θεοῖς”(테오이스/신들)로 달리 쓴다. 사무엘상 칠십인역은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였지만, 시편에서는 블레셋의 신들을 신상의 수준으로 낮잡아 부르려는 의도로 “우상들”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sup>67</sup>

7절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었던 사무엘상 17장 51절을 전제한다. 먼저, 다윗이 쓰러진 골리앗에게서 칼을 뽑는 장면을 사무엘서에서는 “חֲרָבוֹ וַיִּשְׁלַח מִתַּעֲרָהּ נֶסֶךְ נֶקֶי” (바이카흐 에트-하르보 바이של르파흐 미타오라흐/그리고 그가 그의 칼을 잡아서, 칼집에서 그것을 뽑았다)로 표현했다. 그런데 그 칠십인역은 “καὶ ἔλαβεν τὴν ῥομφαίαν αὐτοῦ” (카이 엘라벤 텐 롬파이안 아우투/그리고 그가 그의 칼을 잡았다)라고 앞부분만 옮겼다. 반면에, 시편에서는 “ἐγὼ δὲ σπασάμενος τὴν παρ’ αὐτοῦ μάχαιραν” (에고 데 스파사메노스 텐 파르 아우투 마카이란/하지만 저는 그에게서 그의 칼을 뽑아서)로 표현해서, 두 표현을

58(59):4; 잠 7:15; 속 2:3(7); 사 7:3; 하지만, 이런 번역은 원래 그리스어로 저작된 문헌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1마카 3:11, 16; 5:59; 7:31; 9:39; 10:2, 59, 86 등; HR, 1311c-1312a.

67 칠십인역에서 이런 형태의 번역어는 참조. 민 25:2; 왕상 11:2, 8, 33; 사 37:19; LXX단 3:12, 18, 5:4, 23; HR, 376a-c. 세같은 우상을 뜻하는 “אלילים”이 번역 대분이라고 추정했지만(Segal, “The Literary Development of Psalm 151”, 145), 수궁할 만한 근거를 대지는 않는다.



합쳐서 한 문장으로 옮겼다. 시편에서 쓰인 이 동사가 분사구문으로 쓰여서 좀 더 그리스어화되었지만, 칠십인역에서 히브리어 본문의 둘째 동사 “קָרַח” (살라프/뺏다)의 주된 번역어로 쓰이므로,<sup>68</sup> 사무엘서의 본문 전통을 알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다음으로는 골리앗을 참수한 장면을 묘사한다. 사무엘서가 “וַיִּכְרַח אֶת-רֹאשׁוֹ” (바이크라트-바흐 에트로쇼/그것으로 그의 머리를 잘랐다)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칠십인역은 이를 직역하였다(καὶ ἀφείλεν [-] τὴν κεφαλὴν αὐτοῦ, 카이 아페일렌 [-] 텐 케팔렌 아우투). 반면에 시편에서는 칠십인역에서 여기서만 쓰이며 그리스어 권에서도 드물게 쓰이는 “ἀποκεφαλίζω” (아포케팔리조/참수하다)라는 동사를 썼다.<sup>69</sup> 아마도 히브리어 대본이 있었다면, 사무엘서와 비슷하였을 것이며,<sup>70</sup> 칠십인역은 이를 그리스어에서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의역했을 것이다. 7절의 마지막에서 골리앗을 참수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치욕을 제거하였다는 진술은 사무엘서의 해당 이야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151A+B와 마찬가지로 시편 저작 과정에서 확장된 본문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칠십인역 시편 151편은 전반적으로 11Q5 151A+B처럼 사무엘상 16+17장의 본문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주요한 전승에서는 사무엘서에서 쓰인 낱말을 그대로 쓰기도 한다. 그리고 시문의 관점에서 분명히 151A+B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칠십인역 시편 151편은 사무엘서나 11Q5 151A+B의 전승과는 독자적으로 형성된 표현이나 낱말들이 분명히 드러난다. 따

68 용례들은 참조. HR, 1281b-c.

69 참조. HR, 132; LSJ, 202.

70 비교. Segal, “The Literary Development of Psalm 151”, 145.

라서, 칠십인역의 시편 151편 본문은 분명히 11Q5 151A+B의 본문 전통과 연관성이 있지만, 구분되는 성장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을 것이다.

#### 4. 맺음말: 11Q5 151A+B와 칠십인역 시편 151편 본문의 자료

두 시편은 짜임새 관점에서 저작, 또는 삽입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표제를 제외하면, 분명히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두 시편의 첫 단락(151A:1-4; LXX 151:1-3)에서는 151A의 본문이 칠십인역의 본문보다 원-저작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첫 구절에서 두 본문은 사무엘서의 본문 전통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사무엘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본문 전통도 공유하는데 (151A:1//LXX 151:1), 이로써 두 시편 본문의 전승이 한 본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칠십인역의 2-3절이 더 짧아서 본문 비평의 일반적인 원칙에서 보면, 더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이야기 진술 관점에서 보면 칠십인역이 151A:2-4를 일부 생략(2b-3)하여 요약했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단락과 달리 둘째 단락(151A:5-7; LXX 151:4-5)에서는 두 시편이 독자적으로 성장한 본문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는 세 가지 본문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무엘을 일컫는 호칭의 차이이다. 151A 5절에서는 사무엘을 “נְבִיא” (나비/예언자)로 일컫는다(참조. 삼상 3:20). 반면에 칠십인역 151편 4절에서는 “사자”(ἄγγελος, 앙겔로스=מַלְאָךְ, 말르아크)로 일컫는다(참조. 학 1:13; 말 3:1). 두 낱말은 결코 같은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둘째, 칠십인역 151편 4절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았을 때, 사무엘상 16장 11절의 이야기에 따라 다윗이 양 떼 가운데 있었다고 한 진술은 151A의 해당 부분에는 없다. 이 또한 칠십인역

이 단순히 151A의 본문을 요약했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셋째, 사무엘이 다윗에게 부은 기름에 대해서 두 시편은 전혀 다른 용어를 쓴다. 151A에서는 “שמן הקודש”(쉐멘 하코데쉬/거룩한 기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칠십인역에서는 제의 전통에서 익숙한 “관유”(ἐλαίον τῆς χρίσεως, 엘라이온 테스 크리세오스=חֲמִשׁוּחַ שֶׁמֶן, 쉘멘 하미쉬하)를 썼다. 두 낱말 모두 사무엘서 전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제각각 서로 다른 전통에서 기원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은 결국 사무엘서의 전승에서 비롯하여 서로 다르게 확장된 본문 전통을 보여준다.

셋째 단락(151B: LXX 151:6-7)은 151B의 본문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아서, 맞대어 견주기는 어렵다. 하지만, 151B의 두 행에 남아 있는 본문의 낱말들에는 사무엘상 17장 10, 23, 25절 등에서 쓰인 낱말들이 그대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칠십인역 151편 6-7절도 사무엘상 17장 40, 43, 51절 등의 본문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시편은 모두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이며, 사무엘서의 본문을 중심으로 저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시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본문 전승이 공통되거나 구분되는지는 151B의 본문이 소실되어 더는 비교·분석할 수 없다.

결국 151A+B와 칠십인역 151편의 두 시편은 시문 형태의 저작에서 어떤 형태로든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두 시편이 다윗 전통을 시적으로 확장해서 저작하는 과정은 본문 구성이나 낱말 선택에서 서로 독자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칠십인역의 본문이 짧다고 해서 151A+B가 그것을 확장했거나, 반대로 칠십인역이 151A+B를 요약한 것이라고 설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사무엘상 16-17장의 전승을 바탕으로 두 시편이 공통의 시 저작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명확하나, 둘 가운데 어느 하나가 원본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독자적 확장의 과정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지

금은 남아 있지 않지만, 두 시편이 공유했던 자료가 있었다고 추정해 볼 만하다. 현재 남아 있는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자료의 흔적은 두 본문이 일치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קטן הייתי מאחי	저는 제 형제들 가운데 작았고,
וצעיר [...] אבי	제 아버지의 [...]에서 더 어렸습니다.
[...] רועה לצונן[...]	[...]의 양 떼의 목자[...]
ידי עשו עונב	제 손은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כנור [...] ואצעותי [...]	제 손가락은 수금을 [...].
[...] מי יגיד [...]	누가 내 주님께 전해드리겠습니까? [...]
הוא [...] האזן [...]	그분이십니다. [...] 그분이 귀 기울어십니다.
[...] שלח [...]	그분이 [...] 보내셨습니다.
וימשחני בשמן [...]	그리고 그가 [...] 기름으로 내게 부었습니다.
[...] אחי [...] לוא [...]	내 형제들은 [...]. [...] 하지 않으셨습니다.
פלשתי [...] מחרר [...]	블레셋 사람 [...] 모욕하였습니다.

### 참고문헌

- 강수원, “칠십인역 시편 151편에 관한 주석적 연구: 콤란 시편 본문(11QPsa Col. XXVIII)과의 차이 중심으로”, 『가톨릭사상』 57 (2018), 245-283.
- 김동혁, “콤란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역사에서의 철자 및 음운 유형론”, 『구약논단』 66 (2017), 356-383.
- 김정우, “시편 본문비평에 있어서 70인역과 콤란 사본의 위치와 가치”, 『성경원문연구』 3 (1998), 291-317.
- \_\_\_\_\_, “콤란의 성서 시편들과 11QPsa의 배열 문제 및 그 정경적 함의”, 『Canon & Culture』 2:1 (2008), 89-120.
- 김정훈, “콤란 시편 필사본(11Q5)의 본문 형태 분석”, 『성경원문연구』 48 (2021),

72-74.

- 김태경, “시편연구사.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구약논단」 53 (2014), 325-356.
- 유윤중, “사해사본 11QP<sup>a</sup>와 시편의 정경화”, 「신학논단」 43 (2006), 235-248.
- 이윤경, “쿠파란 시편사본과 페세르 시편을 통해 본 쿠파란공동체의 신학”, 「Canon & Culture」 10:1 (2016), 147-171.
- 이환진, “쿠파란 공동체가 남긴 『시편 두루마리』(11QP<sup>a</sup>) 속의 일곱 시편”, 「신학과 세계」 (2005), 7-35.
- Abegg Jr., M./P. Flint/E. Ulrich, *The Dead Sea Scrolls Bible* (New York: HarperCollins, 1999).
- Dahmen, U., *Psalmen- und Psalter-Rezeption im Frühjudentum. Rekonstruktion, Textbestand, Struktur und Pragmatik der Psalmenrolle 11QP<sup>a</sup> aus Qumran* (Leiden/Boston: Brill, 2003).
- Fernández-Marcos, N., “David the Adolescent: On Ps 151”, in: R. J. Hiebert (ed.), *The Old Greek Psalter: Studies in Honour of Alber Pietersma* (JSOTSup 33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205-217
- Flint, P., “The Book of Psalms in the Light of the Dead Sea Scrolls”, *VT* 48 (1988), 453-472.
- \_\_\_\_\_, *The Dead Sea Psalms Scrolls and the Book of Psalms* (Leiden, et al.: Brill, 1997).
- Fox, M. V., *Proverbs 1-9* (AYB 18A;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Gesenius, W. (ed.),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Heidelberg et al.: Springer, <sup>18</sup>2013).
- Goshen-Gottstein, M. H., “The Psalms Scroll (11QP<sup>a</sup>): A Problem of Canon and Text”, *Textus* 5 (1966), 22-33.
- Haran, M., “The Two Text Forms of Ps 151”, *JJS* 39 (1988), 171-182.
- Hatch, E./H. A. Redpath,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Greek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Clarendon Press 1897-1906; reprinted Grand Rapids: Baker Books, 1991)(HR).
- Hossfeld, F. L./E. Zenger, L. M. Maloney(trans.), *Psalms 3. A Commentary on Psalms 101-150*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1).
- Karrer, M./W. Kraus (eds.), *Septuaginta Deutsch. Erläuterungen und Kommentare zum griechischen Alten Testament. Band II. Psalmen bis Danie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1)(LXX.D).
- Liddell, H. G./R. Scott/Sir. H. S. Jones, *A Greek-English Lexicon with a revised Supplement* (1843; revised ed, Oxford: Clarendon Press, 1996)(LSJ).

www.kci.go.kr

- Martinez, F. G./E. J. C. Tigshelaar (eds.), *The Dead Sea Scrolls. Study Edition* (Leiden: Brill, 2000).
- Rahlfs, A. (ed.), *Septuaginta Societatis Scientiarum Göttingensis auctoritate. X. Psalmicum Od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31).
- Sanders, J. A., "Ps. 151 in 11QPss", *ZAW* 34 (1963), 73-86.
- \_\_\_\_\_, (ed.), *The Psalms Scroll of Qumran Cave 11* (DJD IV; Clarendon Press: Oxford, 1965).
- \_\_\_\_\_, *The Dead Sea Psalms Scroll*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Press, 1967).
- Schipper, B. U., *Proverbs 1-15*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9).
- Schiffman, L. H./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Schneider, H., "Biblische Oden in syrohexaplarischen Psalter", *Biblica* 40 (1959), 202-205.
- Segal, M., "The Literary Development of Psalm 151: A New Look at the Septuagint Version", *Textus* 21 (2002), 139-158.
- Skehan, P. W., "A Liturgical Complex in 11QP<sup>s</sup>", *CBQ* 35 (1973), 195-205
- Smith, M. S., "Psalm 151, David, Jesus, and Orpheus", *ZAW* 93 (1981), 247-253
- Spoer, H. H., "Psalm 151", *ZAW* 28 (1908), 65-67.
- Talmon, S., "Pisqah Be' emsa' Psuq and 11QP<sup>s</sup>", *Textus* 5 (1966), 11-21.
- Ulrich, E. (ed.), *The Biblical Qumran Scrolls. Volume 3: Psalms-Chronicles* (Leiden: Brill, 2013).
- van Rooy, H. F., "Psalm 151 in three Syriac Psalm Commentaries", *ZAW* 112 (2000), 612-623.

#### 검색어

11Q5(11QP<sup>s</sup>), 시편151편, 쿨란, 칠십인역, 다윗

[ ABSTRACT ]

## A Study on the Textual Tradition of Psalm 151 in 11Q5 and the Septuagint

Jong-Hoon Kim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k the source of Psalm 151 found in the Septuagint and 11Q5, even though it is not found in the Hebrew text. Both versions tell the story of David receiving an anointing from Samuel and winning his first battle against Goliath, and are therefore associated with the textual tradition of 1 Samuel 16–17. In addition, common textual traditions not extant in the book of Samuel can be identified in both psalms, suggesting that these two poetic compositions are also related in their own poetic composition processes. The text of 11Q5 is longer than that of the Septuagint, so when the text of 11Q5 was discovered, it was thought that the shorter Septuagint summarized the longer Qumran tradition. However, other scholars have argued the opposite, that the text of the Septuagint was expanded by 11Q5. This study thoroughly analyzes the textual tradition to verify these two claims, ultimately demonstrating that the Septuagint's summary hypothesis can be confirmed in verses 1-4 of 151A (1-3 in the Septuagint), while verses 5-7 of 151A and verses 4-5 of the Septuagint reveal independent poetic composition traditions. According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psalms 151 of 11Q5 and of the Septuagint were independently developed based on a common poetic material rooted in the text of 1 Samuel. Thus, this study

www.kci.go.kr

presents a partial reconstruction of the material based on the common text of the two psalms.

key words

11Q5(11QP<sup>a</sup>), Ps 151, Qumran, Septuagint, David

투고일: 2023년 03월 31일

심사일: 2023년 04월 30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5월 17일

[www.kci.go.kr](http://www.kci.go.kr)